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암호화폐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관세청의 한 직원이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유출했고 이것이 온라인에 유포돼 빛이 바랬다. 또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닛은 2차례 해킹을 당해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해킹으로 거래소가 파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광풍에 가까운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전통적인 화폐 범주 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화폐가 “법적 지급수단을 갖지 못하고 화폐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서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과열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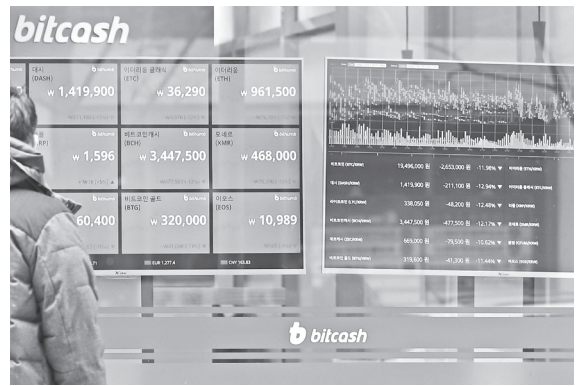
■ 정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정부는 12월 28일 발표한 추가 대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가상계좌의 사용을 금지하고 본인이 확인된 계좌로만 입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의 거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암호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기로 했다.

수사당국은 ‘2018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의 온라인 광고가 포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 12월 28일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부인함으로써 정책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30일부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됐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자가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엔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없으면 해당 거래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실명확인제로 인한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다 미국 달러화 시세와 연동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테더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K팝 한류 주자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은 2017년 ‘팝의 성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2012년 사이 이후 가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두 가수 모두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은 아니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버락스타’가 됐다. 이에 비해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 이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키운 음악적 공감기 팬덤 ‘아미(ARMY)’를 통해 폭발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와 싱글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버전으로 미

국 빌보드에서 한국 가수로는 최초·최고의 성적을 냈다. 국내에서는 앨범 판매량이 150만 장을 기록하고 여러 시상식의 대상을 휩쓸었다.

2017년 한 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은 '기록소년단'으로 불리며 K팝 한류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으며, 경쟁 팀을 압도하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그룹이 됐다.

■ '기록소년단'…앨범 판매량 150만 장, 빌보드 최초·최고 기록

방탄소년단이 9월 출시해 1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는 K팝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기록을 썼다. 이 앨범으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7위에 진입하며 한국 가수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뒤이어 11월 공개한 '마이크 드롭'의 리믹스 버전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28위로 처음 진입해 K팝 그룹 최고 기록을 냈다. 또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으며,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친 뒤 ABC, NBC, CBS 등 현지 방송사들의 인기 토크쇼에도 출연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대중음악계에서 성공의 인증 척도가 주로 판매량과 빌보드 차트인데, 방탄소년단은 두 부문 모두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며 "해외에서 인기가 있더라도 국내에서의 견고한 위치가 중요한데 앨범 판매량을 볼 때 방탄소년단은 이 명제에 부합하는 팀"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 인기에 힘입은 방탄소년단은 2월 서울을 시작으로 북남미, 동남아시아, 호주, 일본 등 세계 19개 도시에서 40회 공연을 열어 퍼펙트 매진을 기록했다. 12월 서울에서 연 파이널 공연에도 총 6만 명의 관객이 모였다.

대표곡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 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12월 기준으로 'DNA'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단 기간에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하면서 총 4편이 2억 뷰를 달성했다. 또 '상남자', '세이브 미'(Save ME), '낫 투데이'(Not Today), '봄날', '데인저'(Danger), '아이 니드 유'(I NEED U), '호르몬 전쟁' 등 7편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돌파했다.

■ 성공 비결은…동시대 청춘과 교감한 음악·친근한 SNS 소통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입증되자 여러 업계에서 성공 비결과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고, 정치권은 소통법을 배우자는 보고서까지 냈다.

이들은 세련된 음악과 뮤직비디오, 청춘과 교감하는 동시대적인 메시지, 파워풀한 '칼 군무' 등이 복합된 완성형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방탄밤', '달려라 방탄' 등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을 SNS와 유튜브에 올리며 친근하게 소통해 세계적인 팬덤을 이끌었다.

그중 방탄소년단 '클래스'의 차이를 하나만 꼽으려면 직접 만든 음악이다. 이들은 학교 3부작, 청춘 시리즈 등 스토리가 탄탄한 연작 앨범으로 화두를 던졌고, '러브 유어셀프 승 허' 앨범에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해외 팬들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 퍼져나간 노랫말은 비슷한 결핍과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 나라 또래들에게 공감이란 방식으로 위로를 안겼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길 염원하는 청춘에게 자신들도 '별 게 없는 중소 아이돌'로 '방송에서 잘리기는 부지기수'였다며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절망이 있네'(바다),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관찮아'(불타오르네)라고 응원했다. 또 입시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 세대부터 팍팍한 생활에 치인 '3포 세대', 청년을 울리는 '열정페이'와 '수저계급론' 등 다른 아이돌 음악이 거리를 두는 시대 현실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멤버들은 지난 5년여간 사운드클라우드에 비정규 음원을 꾸준히 공개하며 창작의 재미를 알아갔고 메시지의 깊이를 더했다. 때론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클래스의 차이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방탄소년단은 성공 비결에 대해 "큰 키워드에서 보면 '진심+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SNS로 소통을 많이 했다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음악과 퍼포먼스의 퀄리티가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걸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진심과 메시지, 우리가 꾸준히 한 소통 빈도가 합쳐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성공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은 '아미'라는 콘크리트 팬덤이다. 방탄복과 군대처럼 '방탄소년단과 팬들은 항상 함께'란 의미로 팬들은 '입덕'(入+덕후·팬이 된다는 뜻)을 '입대'라고 칭한다. 규모는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계정이 한국 최초로 1천만 팔로워를 달성해 '천만 대군'으로 가능할 뿐 정확한 수치는 집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미의 폭발적인 응집력과 성실한 '덕질'(심취한 분야에 열성적으로 몰두하는 일)은 해외 미디어에서도 주목했다.

팬들은 '내 가수'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녹아 있는 가치관을 해석하고 좋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는 등 새로운 팬 문화를 형성했다. 멤버들이 가사의 영감을 얻은 문학작품을 찾아 읽고, 멤버 RM처럼 영어 실력 향상에 의욕을 보이고, 해외 팬들은 한글을 배워나갔다. 그 덕에 '부모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